

대학교육의 '질보증제도'가 시급하다

기고문 - 질보증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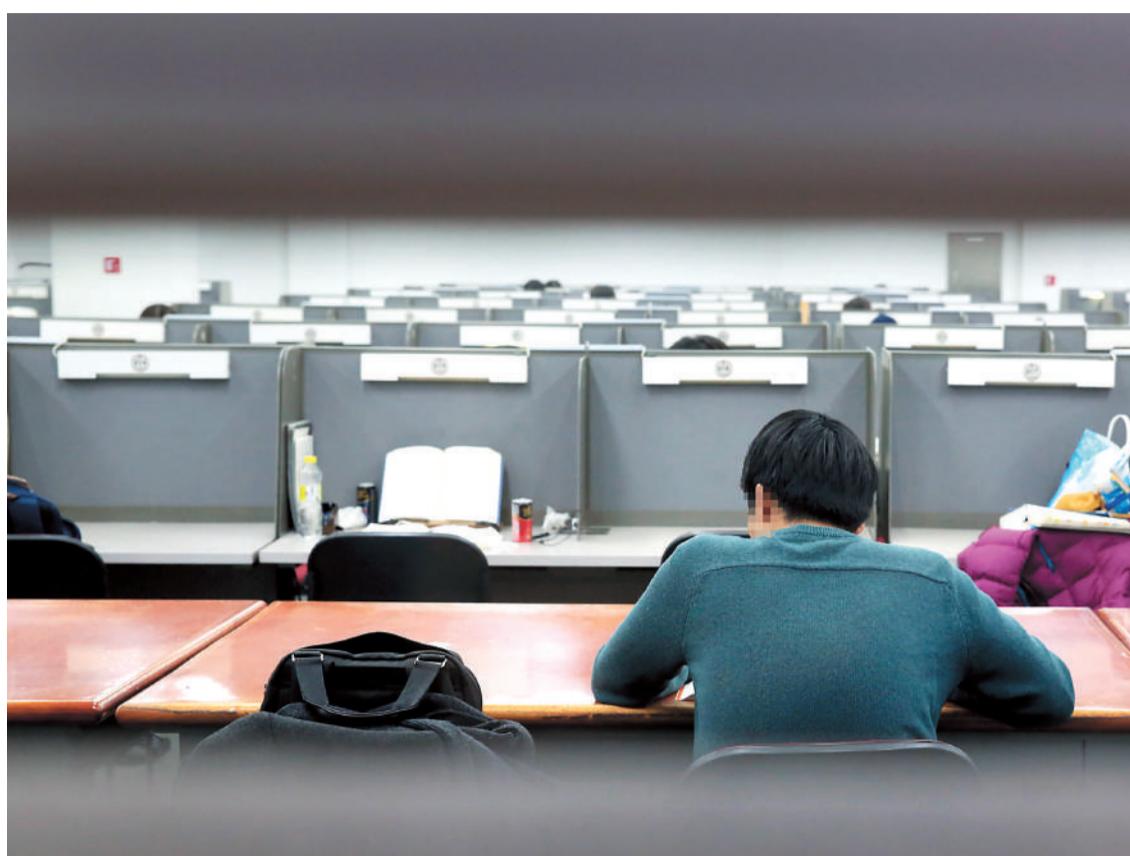
오한석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중앙일보 평가에 졸업생 취업활동, 졸업교육비율, 현장실습 참여 학생비율, 캡스톤 디자인 수업참여 비율 등의 항목이 새롭게 눈에 띈다. 그 배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일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상과 학습목표, 학생의 성취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항목이다. 취업과 졸업이 성과라면 나머지는 역량을 보장하는 교육여건이다. 결국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배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대학은 아직도 강의실 교육의 의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끔씩 가까운 교수들에게 교수가 주는 학점이 무엇을 보장하는 거야? 그 학점을 다 모아서 학사학위를 주는데 학위가 무엇을 보장하는 거야? A와 C 학점이 무엇이 다르지? 하고 물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는 '글쎄요' 한다. 개중에는 강의 열심히 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도 있으나 적합한 답은 아니다.

모든 학과에 질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학생들은 성적에 목을 매고 있고, 정부는 청년실업, 고등실업자가 늘어 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정부나 학생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 교수의 책무, 우리 미래의 문제이다. 졸업생의 취업률이 50%대라는 것은 결국 졸업생의 1/2이 꿈을 잃고 상실감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장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금번 2016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의 설립목적은 문화세계의 창조의 역군이 될 지도자 육성이 다. 문화세계는 미래의 세계, 우리가 열어갈 세상이다. 이 세상을 열어갈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이 우리 경희대학이 하겠다는 것이 설립자의 의지이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교육의 질 보증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2016년도 교육과정을 위한 개편이 진행 중이다. 공학 계열의 상당수 학과가 이미 공학인증 평가를 선언하고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취업률이 뒷걸음 치고 있는 상황에 무엇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려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학과에 나름대로의 질 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하면 3월초에 이력서를 써서 내라한다. 그리고 공개해도 좋은 사람은 매일로 보내라 한다. 대부분 3, 4학년 이력서가 같다. 그러면 왜 너는 3학년이고, 너는 4학년이니 물어본다. 그리고 이력서를 설명하면서 상별과 경력은 학별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 이렇게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

력이 많으나? 누가 이것보고 공부했다 하겠나? 하면서도 경희대학교 졸업(공학사) 학력만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성과가 전제되지 않는 교육은 진열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달 후 4학년이 되어 졸업 시점에서 갖고 싶은 이력서를 파란색으로 고쳐서 다시 써오라하고, 학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이 졸업후 10년이 되어 성공한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났다. 그 내용을 A4 한 장에 써오너라 하고, 그 중에서 빛나는 공개하면서 물어본다. 네가 성공한 요인을 대학교육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대학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더 이상 궁색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를 더 소개하면, 개학하면서 첫 수업에 앉는 좌석이 대부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출석을 부르며 네모 칸 안에 학생의 앉은 위치를 전후 좌우 중간을 표시하고 앉는 위치를 바꿔보게 한다. 그리고 뒷좌석만

앉는 학생은 감점한다고 점수를 공고하고 반복적으로 뒷좌석을 지키는 학생에게는 위닝을 주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 배경은 앞자리의 부담감을 극복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부담감을 호소하였지만, 불편한 건 네가 해결해라! 했더니 책상의 줄과 줄 사이 복도에 새 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앞뒤로 자리이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업분위기가 교수자 중심에 학생들도 끼어들기 시작하였다. 4~5명을 한 팀으로 배운 지식의 범위 내에서 2주간 설계프로젝트를 수행 및 발표를 통하여 업무수행 역량과 자신감을 볼 수 있었고, 학기말에 자리위치별로 성적분포도 내보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변화이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지식은 무기이고 역량은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재상과 성과(outcomes)가 전제되지 않는 교육은 진열장에 불과하다. 이제 대학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담보하는 인재상과 성과가 임베디드 된 CEA(course embedded assessment)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길 희망한다.

참여마당

유태혁
철학 2015



사과의 첫 경험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나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다. 내 얘기를 듣고 난 후, 선생님은 내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태혁아 너는 멋있는 사람이잖니.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는 용기는 내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사과를 잘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평소 좋아하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사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입을 여는 순간 호흡이 가빠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이 엄청 멋있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친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먼저 사과를 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었다. 간질간질하면서 무언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따끈따끈해지는 기분이었다. 사과의 첫 경험은 정말로 강렬했다.

어느 샌드우치는 사과가 부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사과를 잘 하지 않고 잘하지도 못한다. 먼저 사과를 하면 무언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식의 편견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 이러니 먼저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정말이지 힘들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존재한다.

사과는 상대방과 내 관계의 소독약이다.

바를 때는 따끔하긴 해도 그래야 상처가 잘 아문다.

부드러운 것이 참으로 강한 것이라는 말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천하기가 힘들다. 내가 부드러워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자기 세상 속에서 살기 바쁘다. 상대방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어서 빨리 직장에 가야하고, 학교에 가야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이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에 먹은 치킨이 살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떠올라서 심난하고, 잊고 있던 과제가 생각나서 막막하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혹시라도 내가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마음의 공간은 정말이지 눈곱만큼도 없다.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모르고 사과를 회피의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기자회견에서 흔히 말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에서부터 한창 패러디가 봇물 터지게 나왔던 한 정치인의 '미안하다!'까지. 이러한 사과는 정말 안하느니만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 진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과에는 진심이 필요하다.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이 알아주기 마련이다. 사과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다. 사과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소독약이라 할 수 있다. 바를 때는 따끔하긴 해도 그래야 상처가 잘 아문다. 하지만 어설플면 굽어서 터져버리고 그냥 두게 되면 흉이 생긴다. 우리 모두 사과의 따끔한 첫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1면에서 이어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은 설파한 존 로크는 짧은 시절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관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목도한 미국의 개척자들은 황야에서 한 자루 총에 의지한 채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던 개인이었다. 로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을 정립했다고 한다. 미국의 초월주의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개인이 국가보다 상위의 독립적인 권력이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파생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목적으로 세금을 사용한다면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의 권리로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백오십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현재의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아직도 그다지 높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인이나 개인주의라는 말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착되지 않

았고, 그다지 좋은 느낌을 주지도 않는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혼동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는 즉각 공동체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간주되곤 한다. 물론 한국 사회가 개인을 중요시하지 않고 집단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는 나름의 역사적 이유가 있다. 개인성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오랜 전통에서는 조상과 가문, 그

리고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었다. 이 사고방식에서 개인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조상의 후예이고 가문, 가족의 일원이며 나아가서는 학교, 회사, 국가의 일원이 된다. 개인이라는 가치는 근대성의 핵심이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 혈연이나 지연 같은 집단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개인이 탄생한다. 개인은 외부의 지시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희생되는 사회는 고통 받는 사

회다.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권위주의, 서열주의 등은 모두 개인주의를 가로막은 집단주의의 다른 이름들이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결코 보편성의 지평, 세계시민의 광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될 때 그때 비로소 한국 사회는 근대의 가장 큰 문제인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경희대학교 대학주보